

투데이 칼럼

내 고향 천천(天川)사랑

설 명절이 돌아오는 날이 가
까워지면 내 나이 육십이
넘었지만 고향생각, 부모님
생각이 앞을 가린다.

내 고향 장수군 천천면은 하늘과
물의 고장으로 삼국시대에는 백제
의 영역으로, 통일신라 이후 757년
(경덕왕 16년)에 군·현의 명칭을
고침에 따라 고백현으로 개칭되던
서 고백현의 관할구역에 속했고 이
때까지는 현청의 소재지는 천천면
남암리 내가 태어난 마을인 둔촌마
을 앞 덕들에 있었다.

고종 32년에 신북면으로 고쳐 부
르다가 1917년 다시 면제 공포로
신북면을 천천면으로 개칭하여 현
제에 이르러 있다.

금강 상류인 춘송천을 따라 논이
이어지고 천변의 양 언덕에는 밭이
개간되어 곡류로는 쌀농사가 주업
이 되었고 밭작물로는 담배 농사가
주종을 이루어 한때는 10여년 일담
배 소득이 작목별 소득 1위를 차지
한 때가 있었다

지난 어린시절 초등학교 이전과
이후 50년대 60년, 70년대는 아버지
와 함께 일담배를 말리기 위해 차

곡차곡 엮어 매달던 일을 도우면서
이것을 해야 먹고 살수 있다는 아
버지의 말씀이 생각난다.
젊은 시절부터 아버지는 일하기
싫어하고 동네 이장만 보고 싶었지
만 담배일은 정성으로잘 하신것 같
았다

지금 생각하니, 어린 나도 담배
역기가 너무 싫었지만 빈농의 사정
상 초등 중등학교에 갈려면 참고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마음 먹었던
옛 기억이 난다

또한, 내고향 천천은 노령산맥의
중산인 장안산이 태백 정간에서
갈려나와 수분제를 더듬돌로, 팔
공산을 솟구친 다음 그 한줄기가
북으로 대덕산, 성수산등 주봉을

이루면서 계룡산 부소산까지 뻗
어 북노령을 이뤘는데 면의 서북
쪽은 북노령과 받고개가 경계가
되어 계남면과 경계읍에 인접해
있다.

우리고장 옛 지명은 참으로 아름
다운데 오리방죽, 반담마을, 밭골,
연꽃마을, 지내울, 구름골짜기, 새
터, 노루골, 돌메기등 서정성 짙은
순수한 우리말로 자연, 지리, 풍경
을 드러내는 시어(詩語)다.

초등학교시절 동네앞 구름고개를
넘어 월곡 초등학교를 다닐때 많은
추억이 있다.

나무뿌리에 올라타 놀던일 짝으
로 썰매를 만들어 정상에서 밑으로
내려오던 일,고개 정상에서 시원한

바람으로 더위를 식하던 일, 산에서
진달래꽃 따먹던일 소꿉장난 하던
일등 어린시절의 자연과 함께 했던
추억은, 오늘 날에도 가끔 꿈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이 전개된다.

그리고, 설날이나 보름날, 추석
명절에는 농악놀이를 따라 다니던
모습, 달집 태우는 풍경등 내 고향
에 얽힌 이야기는 며칠해도 부족
하다.

그때 그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은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낭만에 젖어
있을때도 있다.

고향은 항상 넉넉하고 인심좋은
사람들과 그로운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니, 오늘날 우리의 삶이 고달
프고 시간이 없어도 이번 설 명절
에는 고향을 둘러보는 넉넉한 시간
을 가져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늘과 물의고장, 내 고향도 이제
는 힐링의 고장, 농가 소득이 높아
잡사는 고장으로 발전했으니 고향
을 떠나 살고있는 우리 모두는 자
긍심을 갖고 고향사랑 운동에 앞장
서 보자!

향우들이나 지역주민 모두가 손과
손을 잡고 애郷심을 발휘하자.

김 양 옥

재전장수 천천면향우회장

독자제언

심각한 후유증 부르는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간의 신체
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단순히 폭력뿐만
아니라 상해, 모욕, 협박, 강금, 유기,
학대등도 포함된 범죄다.

우리사회는 가정폭력을 범죄라 인식
하기보다는 남의 일이고 가정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을 꺼리고 있고 신고를 통해 해결
될 것이라는 신뢰도 부족하다고 느끼
는 것 같다.

가끔 드라마에서 보면 "우리 남편이
술만 먹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인데"
라며 가해자를 감싸는 장면을 본 적
이 있을 것이다. 피해자는 폭력을 범
죄라 생각하고 신고를 하여 법의 보
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가정사라는
경계에 가두고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가
정폭력의 계속된 피해를 감수한다.

또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
나야 함에도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경
험한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 한 연
구결과를 보면 부모의 상습적인 폭
력으로 자라난 아이는 잘못된 가치관
형성과 불안한 심리를 갖게 되고 올
바른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어 학교폭
력의 가해자가 되고, 성폭력 가해자들

중 많은 수는 과거 가정폭력에 노출
되었던 유년기를 보냈다고 한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가정에서만 끝나
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각자가
속한 또래집단, 이웃, 학교, 직장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폭력사회가 되는데 기여한다.

경찰은 가정폭력사건이 발생 현장에
도착하면 피해자의 안전과 폭력위협
으로부터의 보호를 가장 우선시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폭력행
위를 제지하고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의료기관에 인도하고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이러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폭
력행위 재발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은 퇴거등의
격려, 100m이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검
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사안이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경찰은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으로 이러한 긴급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다. 가정폭력이 발생
했을 때 재빨리 112에 신고하거나, 가
정폭력방지본부 1366(여성긴급전화)
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임도훈 익산평화지구대순경

독자제언

열쇠 꽂아 둔 차량은 이미 절도의 표적

최근들어 발생한 도난차량 사건중에
자신이 운전하고 온 차량에 열쇠를
꽂아 둔 상태로 내려 잠시 불임을 보
고 온 10분사이에 차량이 없어졌다는
신고접수를 받은적이 있다.

전국에서 접수되는 많은 오토바이를
포함한 차량절도 사건중에 많은 경우
가 이와 유사한 경우가 많은데 마트
나 주택앞대에서 오토바이에 키를 꽂
아 둔 채로 시동을 켜놓거나 정차를
해놓고 잠시 불임을 보고 온 사이에
차량을 도난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피해내용을 물어보면 대부
분이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뒤편
있었어 설마 차량을 훔쳐가겠어' 하
면서 대부분이 이미 도난사고의 위험
에 노출되어 있었고 비단 이런 위험
은 해당 피해자 뿐만 아니라 우리 모
두에게 잠재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는 반대적으로, 범죄꾼들이나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은, 이러한 부주
의를 이용하여 오히려 너무나 쉽게
차량을 절취하고 있다.

이러한 차량절취는 바로 다른 범죄
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심각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외근형사들이나 지구대 경찰관
들은 외근 활동시 이러한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도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중에 많
은 홍보를 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평소
에 키를 꽂아두거나 차량 내 키를 보
관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 차량절도의
피해 및 2차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였
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현근 군산경찰서 유치권리팀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0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동동 508-80 승주빌딩 4층

사설

국가 철도망 사업에 거는 기대

전북도가 보고한 국토교통부의
국가 철도망 구축 사업에 거는 기
대가 크다. 전주와 김천 간 철도
건설이 추가 검토 대상 사업에 포
함됐다기에 하는 말이다. 검토 대
상 사업이라는 게 마음에 걸리거
는 해도 예전보다 진일보한 것으
로 받아들이고 싶다. 도민들은
SOC 확충과 관련해 회소식을 고
대하고 있다. 특히나 동부권 주민
들이 그러하다. 전주 김천간 철도
건설이 있어야겠다는 것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계속된 열원이다.

전주와 김천간 철도 건설은 전
북과 경북 간 동서 화합 차원에서
도 마땅하고 국토균형 발전 차원
에서도 마땅하다. 그래서 다른 한
편으로 우리 전북 지역의 고른 발
전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다. 지난날 여러 번 주문했던 바
지역 발전 관심사가 고루 활발해
야했다. 그리고 발전의 기회가 균
등해야했다. 동부권에도 기회가
많아야겠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현실
은 오지부동이다. 오래 전부터 계
속된 답답한 현실 때문에 동부권
이 갈수록 초라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이 기대되는 이
유는 또 있다. 올해부터 2025년까
지 새만금에서 대야까지 28.5km를

건설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그리
고 그에 더하여 장항선 신창에서
군산 대야 구간을 건설화 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것
은 새만금 지역 물류 수송을 위해
서도 한중 경협단지 조성을 위해
서도 당연하다. 신항(신) 건설되
고 물류단지가 조성되면 원활한
수송망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조기에 일을 착수하는 것은 예정
된 수순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전주 김천간 철도 건설인데 전북
도는 사실상 반영된 사업으로 보
고 있으니 그러되리라고 기대를
가져볼지도 하다.

다들 북도하는 대로 우리 전북
지역은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
너무 낙후돼 있다. 그 낙후된 중
에서도 동부권은 더욱 낙후돼 있
다. 교통 인프라며 기업 유치며
무주군과 진안군과 정수군을 위
해서 아쉬운 게 하나 뿐이 아니
다. 전북 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
교해 낙후된 것이 답답하다면 도
내 동부권의 처지는 더욱더 그러
하다. 동부권은 인구 감소로 해마
다 왜소화 현상이 그치지 않고 있
다. 이런 불균형을 당연하게 여겨
서는 안 된다. 동부권에도 발전
기회가 더 주어져야 하는데 국가
철도망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큰 것
은 그 때문이다.

지역발전이 항상 중심 주제가 돼야

저번의 대중국 전북 쌀 수출 소
식과 이번의 국토교통부의 동서
철도 건설 언급을 보면서 생각나
는 게 있다. 지역발전이 항상 중
심 주제가 돼야겠다는 것이 그것
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정치의
계열이 다가옴에 따라 다른 것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 발전이 항
상 중심 주제가 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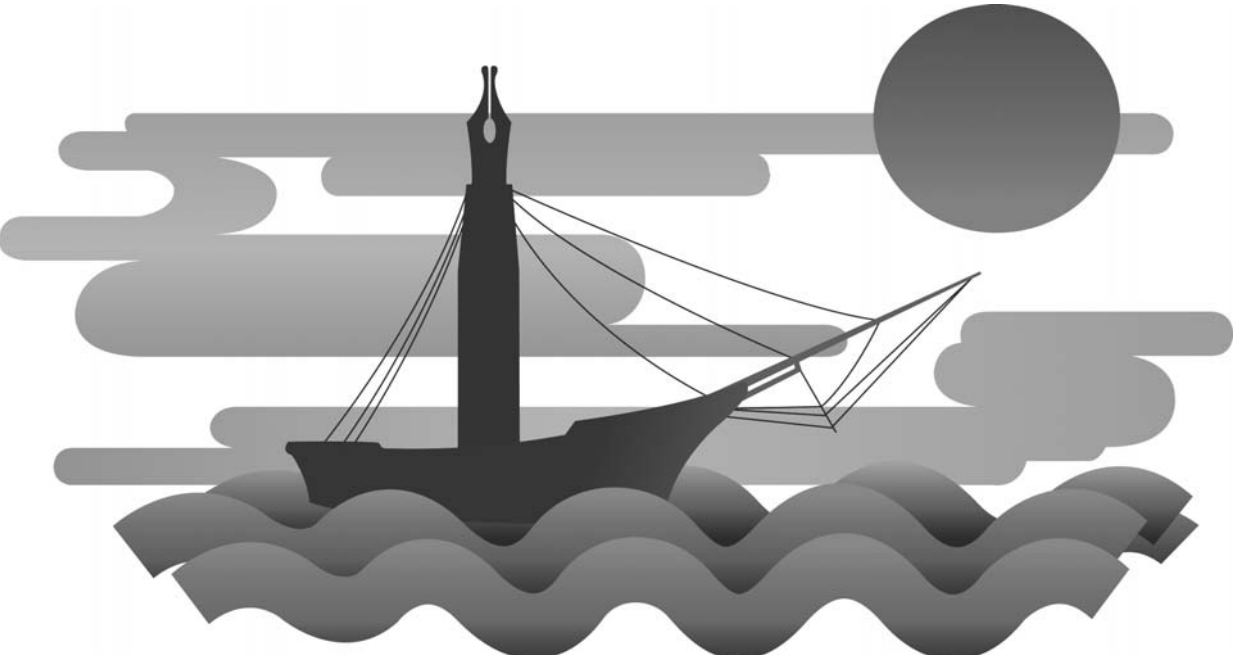
우리 지역이 예전과 달리 조금
씩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
은 어디까지나 자체 비교일 뿐이
다.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하면 때
우 뒤처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항상 중심
주제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
고 말할 수 없다.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했던 말을 또 하거나 발전
보폭이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다. 다른 지역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전북의 발전이 미미
하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대
형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야했다.
그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가 개발
되지 못하고 있는데 답답한 노릇

이다. 전북도 고위 관계자들의 책
임이 막중하다. 지역의 발전을 견
인하는 이들은 비상한 각오를 다
져야 한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만으로는 부족하다.
뛰어야 한다. 뛰지 않으면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 지난
날 여러 번 지적해 왔거나 무슨
일이든 진취적인 행보가 소망스럽
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취해야 한다.

지역발전이 항상 중심주제가 돼
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전북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사업들이
도내에 과연 몇 개나 되는 지 생
각해볼 일이다. 새만금사업 말고
는 식품클러스터 사업과 탄소단
지 조성 사업 정도가 고작이니 말
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저번에
공표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년까지 1조6천억 원을 투자해
우리 지역을 국내 탄소산업의 중
심지로 키우겠다고 했던 거 말이
다.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
부를 상대로 부단한 노력이 있어
야 한다. 전북도는 설 연휴 이후
지역 발전을 위해 한차례 매진하
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
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